

소멸된 지리학 –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폐허에서

문영민(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 엠허스트 미대 조교수)

한때는 비행장이었다는 여의도에서 자란 나는 성인이 되고난 후에야 그곳은 근현대를 관통하는 한국의 군사화된 모더니티가 여러가지의 형태의 부산물로 드러나는 기이한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늘 뛰놀던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 한 구석에는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지상형 벙커가 있었다. 북한이 “쳐들어 올”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그 벙커의 표면은 군복의 위장 패턴들이 띄엄 띄엄 “국방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의 철문은 늘 굳게 잠겨 있어서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벙커의 계단을 넘나들며 다방구를 하다가 철문 앞의 좁은 통로에 들어가면 오줌 지린내가 날 뿐이었다. 어느날 민방위 훈련 후 그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가 본 즉, 여느 지하실처럼 컴컴하고 습한 냄새만이 가득했다.

성인이 되어 긴 세월만에 돌아와 본 놀이터에는 그 계단식 벙커는 온데 간데 없고 많은 나무들 사이로 주민들의 산책길과 운동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다. 여의도 광장 역시 군사혁명의 대명사를 뒤로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름으로 바뀌었고, 국군의 날에 미사일, 탱크, 육군보병들이 칼같은 정확함으로 행진하고 지나가던 시커먼 아스팔트는 사라지고, 아름드리 소나무와 정자, 인공호수와 산책로가 대신하고 있다.

내가 최근 수시로 밟고 지나다니던 여의도 환승센터 바로 밑에 대형 지하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최원준의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국군의 날 행사 중 유사시 박정희대통령과 정부요인들이 긴급대피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공항이나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환승센터라는 슈퍼모더니티의 도로 위에 놓인 비장소 (non-place) 바로 밑에, 군사체제의 몰락과 민주정권 수립 이후 역사의 망각 속에 묻혀버린 전혀 다른 의미의 비장소가 물리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구를 뒤덮은 신자유주의의 위력 아래 이러한 벙커들은 반공체제라는 구시대의 유령 혹은 유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최원준의 사진은 북한체제에 대응하여 강력한 군사국가의 건립과 산업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삼은 반공 및 개발 독재체제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한다. 그 역사에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수호는 무엇보다 숭고한 것이라는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러한 체제가 창출한 것이 군사, 경제, 정치, 교육을 총체적으로 관할해온 군사화된 모더니티이며, 최원준이 포착하는 대상들은 그것의 폐허들이다.

젠더화된 공간

장소는 공간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공간이 탁 트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 열림, 움직임, 때로는 두려움을 수반한다면, 장소란 집과 같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 안정감, 보안, 보호, 편안함, 아늑함, 친숙함, 정지, 정 등을 내포한다. 즉 공간이 추상적인 개념인 것에 비해 장소란 구체적인 역사, 사회, 정치, 젠더 등의 요소를 함축하는 특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공간과 장소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는 없다. 최원준이 선택하는 장소들은 도시환경에서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늑함과 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 또한 아니다. 그 장소들은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 억압된 공간이며, 간혹 떠오르거나 회자됨으로써 비로소 의식의 조명을 받게되는 곳이다. 그가 선택하는 장소들은 일상 속에 침투되어 있던 군사정권이 규정한, 철저히 남성주축의 권력을 상징하는, 즉 젠더화된 특정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공간은 여성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통제하는 장소이다.

미아리 텍사스 연작의 화려한 집창촌이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구멍가게로 변신한 뒤 곧 거대한 고급 아파트를 뒤로 하고 허물어져가는 변천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까밀로 호세 베르가라가 미국 디트로이트 등의 슬럼에서 같은 장소를 십 여년 동안 되찾아서 주택과 주거환경의 고급화 과정을 수차례 재기록한 작업을 상기시킨다. 특히 집창촌이 보여주는 강렬하게 키치한 인테리어를 마주치면 이 작업은 군사정권의 시설들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업 역시 군사주의와 성정치학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군복무시절 많은 병사들이 집단으로 방문하여 겪게되는 경험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태인 성경험을 통과의례의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요된 것이다.

군사화된 모더니티에서 한국의 여성은 분명히 주변화된 이등시민으로서 존재해왔다. 군사국가와 산업국가 형성의 협력관계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여성은 집안에서 현모양처라는 이데올로기로 저당잡혀 있는 한편, 미아리 텍사스의 직업여성들은 남성고객들에게 공적인 공간에서 정면으로, 아니 전면적으로, 맞대고 기다린다. 흥미로운 점은 최원준이 이후에 기록하는 병거나 비밀아지트가 숨겨져 있거나 위장되어 있는 한편, 그와 정반대로 미아리텍사스의 파사드는 길에서 지나가며 깊숙히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면 유리 속의 완벽한 타블로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공공영역 속에서 친밀함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남성은 그들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합리화하게 되는데, 그 메카니즘은 열려있는 파사드를 통해 여성들의 위계에 따른 자리배열을 인식하면서, 그 서열은 군사정부가 남성 국민들에게 하사한 서열의 연장이라는 것을 무의식중이라도 확인하게끔 작동한다. 투철한 반공투사와 산업역군들에게 주어지는 스펙타클 속에서 여성들은 그들을 조망하는 남성들의 시선에 접수될 뿐이다. 스펙타클은

이렇게 고립과 분리의 완성을 위해 소비된다. 이러한 면에서 색보정을 통해 강조되는 인공적인 요소들은 젠더화된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그의 텍사스 연작은 스펙타클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 역시 개발독재체제의 가치관을 계승하듯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자본의 힘에 짓눌려 허물어져버리고 있다. 미아리의 주고객이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충성스러운 남성들이었다면 오늘날 그곳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제도에 대한 재심문

최원준이 군복무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 즉 군사정권이 민주정권으로 이양된 후 점차적인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던 무렵이다. 그는 전투경찰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시위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책무로 맡았다고 한다. 그 당시 미군 장갑차에 압사한 여중생 사건, 이라크 전쟁과 파병반대 시위, FTA 반대 시위 등 반미감정이 고조된 대규모의 시위들을 목격하면서 사회와 정치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그가 카메라를 든 기동대 경찰로서 시위자의 모습을 기록한다는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자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실"을 기록하여 그 이미지가 아카이브된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실"이 정보화되고 그것이 권력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에 대한 자각이었을 것이다.

사진이 지닌 그러한 잠재력을 인식한 그는 마치 스파이처럼 잠입하기 힘든 권력의 공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의 초기작 <할당되지 않은 공간>은 그가 의무복무하던 경찰서 지하의 체련실과 통로 등과 같은, 경찰서 내에서도 통제구역이었던 장소들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통제구역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정치적 제반 상황이 급변한 이후였기에 용이했을 것이다. 그는 사회 속의 구조가 비가시적인 것처럼, 통제구역이 실제의 장소성을 유지하되 경찰서 내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마치 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비록 작가가 이 장소를 촬영할 때는 이미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이지만, 그것은 반공체제 하에 만들어진 국민들의 훈육과 처벌, 특히 좌파세력에 대한 폭력과 제재를 실천하는 하수인들이 단련하는 남성적 공간들인 것이다.

<세트>는 법률의 실질적인 효과가 작동되는 법원, 대기실, 취조실 등을 기록한 것이다. 작가가 명시했듯이 이 연작은 공간과 그 안에 배치된 사물들이 그 속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법 앞에 승복하게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며 권력의 메카니즘을 이루는 물리적인 요소들은 다름 아니라 대리석과 카펫, 일렬로 늘어놓은 판사의 초상들, 빨간 색의 낡은 가죽소파와 유리탁자 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습들은 사실은 얼마나 가짜같으며 별 볼일 없는, 참기 어려울 만큼 조악하며 인공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연극적인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최원준은 심문, 취조, 판정의 장소 자체를 카메라를 통해 재심문하고 있다.

집단적 정체성의 신화

최원준이 제도적 시설의 내부에 대한 관심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땅을 헤매고 다니며 군사정권이 만든 시설물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간 기록은 <언더쿨드 Undercooled>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여기서 보여진 방어선과 방호벽은 유사시에 폭발되어 적군의 진로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것은 은폐되어 있다가 폭발됨으로써 자신들의 기능을 완수하게 되는 지뢰밭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방어선과 방호벽은 그 형식상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그들은 가장을 전제로 하여 건축적 형태로 존재한다. 때로는 그들은 거대한 모더니스트적인 슬랩과 기하학적 입방체로 줄지어져 있는데, 균열이 일어나 금이 가더라도 굳건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냉전의 오랜 기간 자연과 함께 하면서 유기적으로 동화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소에 개입된 썩지 않는 이물질이다. 썩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면 부숴버리는 대상물이다. 사진이 항상 인텍스의 역할을 한다면, 폭발하지 않은 방어선과 방호벽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인텍스한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주위환경에서 동떨어진채 어색하게 서있거나, 기껏해야 숨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운명을 지냈다.

오랜 세월 괴송과 어우러진 비밀아지트나 벙커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덤의 모습과 흡사한 모양새를 지냈다. 조상의 무덤 앞에서 개인의 뿌리를 더듬어 본다면, 벙커를 보고 국민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리한 생각인가. 그러나 그 정체성의 핵심이란 군사화된 한국적 모더니티의 공공영역에 놓여진 집단적 정체성의 공허함이다. 나는 소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혹은 은평구 뉴타운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에서 어정쩡하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개발업체와 군인들에게 허물어질 벙커들을 보며 그러한 공허함을 느낀다.

말소된 장소

<타운 하우스>라는 신작에서 최원준은 한국의 군사화된 모더니티가 추진한 반공독재체제의 존속에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미군기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나뭇 투하 등으로 인해 무려 4 백여만명의 한국인 사상자를 낸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치상황에서 파생된 미군기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와 맥락을 같이해왔다. 요컨대 미군기지들은 한반도에서는 아직 미완결인 냉전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한국 곳곳에 퍼져있는 미군기지들은 거의 백 여곳에 다다르며, 그 총면적을 합하면 서울시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들의 재편을 시도해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타운 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군기지의 모습들은 지난 몇 해 동안 파주와 같은 최전방의 기지들을 한강 이남이나 해외로 재배치된 이후에 남은 흔적들이다. 파주의 여러 사단들은 점차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동원된 이후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한국정부가 비록 무상으로 공여지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막대한 기지운영비를 부담해온 미국으로서는 지난 수 십년간 지속적으로 표출된 한국인의 반미감정에 입각할 때 유사시 자국민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형성과정에서 미군의 이주까지 공여지의 책정문제와 반환 사후처리는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파주에서 평택으로 이주하는 과정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미군기지의 설립은 지역주민들과의 늘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설명하듯이 최원준의 사진에서 미군이 이주한 후의 모습을 보면 기지들이 기존의 이웃과 관계한 양상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잘 정돈된 공동묘지가 있고 반대편 기지에 고철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은 굳이 한국인의 유교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광경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기지 안에 신라시대의 왕족 후손의 봉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군은 물론 국방부까지 이것을 묵인한 채 기지를 운영해왔다.

<타운 하우스>에서 미군의 자취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철책의 안팎으로 견잡을 수 없이 무성하게 자라난, 그리고 세멘트 바닥을 뚫고 커져버린 잡초 뿐이다. 간혹 미군의 움직임 상상하게끔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캠프 스탠트의 지면에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진 화살표 위에 그을린 넓은 군용차량의 타이어 마크 정도이다. 그들의 흔적은 마룻바닥이 일어나 뒤틀려버린 체육관 실내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말소된 장면”들을 통해 부정, 무질서, 방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송탄에 위치한 어느 배너제작소의 모습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우선 그것은 명목상 민주주의를 앞세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적에 대한 견제와 그들의 궤멸이라는 목표하에 타자의 땅에서 주둔하는 미군사단들의 시각적 상징물의 연합이다. 그 목표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듯이 No Bullshit 이라고 쓰인 배너도 함께 하고 있다. 그 배너들은 이제 이주와 동시에 불가피한 재편을 겪게 될 사단들의 유동적인 정체성을 지시한다. 동시에 그러한 미군부대들의 배너를 만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기지촌 사람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확인케하는 이미지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다시 시행할 외국인 부대의 문장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운 하우스>에 등장하는 기지촌의 모습들은 여러 참전기록의 부조물들과 병치된다.

이 부조물들은 맥아더 장군과 같은 유명인사와 미군의 위용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원준의 사진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형태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실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기념비에 부착된 부조물이라는 점에서 역시 그의 사진은 “사실 그 이후”라는 기록성에 준거한다.

맥아더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의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 만주에 핵폭탄을 30~50 개 가량이나 투하하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맥아더가 이렇게 타자의 목숨에 아랑곳 않는 광기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국인들이 아직도 그를 영웅시할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한편 미군기지의 공여지는 국방부에 반환된 후 허용량을 심지어는 1 백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됨으로써 큰 문제로 남아있다. 최원준은 한국인들 사이에 청동에 각인된 이미지로 반영구히 남은 자유민주주의의 ‘영웅’들의 모습과, 삶을 불어넣기 어렵게 폐허로 남은 기지의 죽은 땅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지시하고 있다.

비움의 정치학

최원준 사진의 부숩지기 전, 급변하기 바로 이전의 군사시설의 폐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은 일제의 통치하에 수동적인 여성성을 내포하는 뜻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제는 진부한 이미지를 부여받게 되었다. 최원준이 집중하는 폐허들의 텅 빈 공간이 보여주는 것은 동양사상에 의거한 비움의 미학같은 개념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여러 외세에 의해 수차례의 능욕을 거쳐왔고 그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근현대 한국의 비워진 공간은 폭력적으로 파열된 역사의 부산물인 군사시설의 폐허로서의 비워짐이다. 최원준의 여러 연작들은 이렇게 정치적 역사적 성격을 지닌 비워진 공간들의 분류학을 상상케한다.

그러나 그 비워짐도 머지않아 자본의 욕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그는 예견한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협정의 한 단계가 말소된 증거물인 텅 빈 기지를 바라보고 있던 작가는 한국에서 소멸된 폐허가 그저 텅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왜냐하면 근현대 한국의 공간의 역사는 자본의 힘으로 장소의 특수한 역사성을 소멸시키고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주가 완전히 탈바꿈되어버리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작가가 피력하는 심경은 미군기지 이전의 대지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그로서, 그리고 오래간 미군의 사용에 의해 접근 불가했던 남의 땅과도 다름 없는 영역에 대한 생소함, 그리고 개발의 논리에 의해 급변할 미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땅에 대한 소외감일 것이다.

그 폐허들에 대해 최원준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은 단지 한 개인의 것만이 아닐 것이다. 폐허가 상징하는 것은 공공의 기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물리적 흔적의 증거와 그것의 기록, 아카이브와 집단의 트라우마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고고학

지난 10 여년간 최원준의 사진작업의 궤적을 보면 경찰서, 법원, 취조실 등의 국가 기구들에서부터 근래에는 한국 곳곳에 퍼져 있는 벙커와 방호벽, 방어선, 그리고 미군기지의 물리적 현황에 이르고 있다. 전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훈육과 처벌을 위한 제도와 시설, 즉 대국민 관련 시설물들의 기록이라면, 후자는 대북한 및 대미국 관련, 그리고 동북아시아 정세와 긴밀히 관련된 지역특정적 시설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약간은 변주로 보일 수 있는 미아리텍사스는 성매매방지법의 적용 이전까지 1 등국민 못남성들에게 주어졌던 도착적인 '혜택'으로, 언더그라운드 지하철 공간들의 이미지들은 속도를 중시하는 산업사회의 혈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여러 연작들을 관통하는 것은 작가가 권력의 시스템과 그 양상들을 들여다 보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혹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또는 역사가 일어난 뒤에, "사실"이 행해지고 난 뒤에 남은 그 장소의 현재 모습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 군사유물들은 임무를 수행한 뒤, 혹은 수행하기도 전에 폐기처분 되고 있다. 이 상황은 지난 날 총력안보와 총화단결이라는 구호아래 온 국민들을 제재했던 반공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논리와 국제정세에 따라 변하는 미국의 전략적 방침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적인 망각에 역시 큰 몫을 한다. 파주와 동두천의 공여지가 반환된 뒤 발표된 계획들이 다루고 있는 대학, 공원, 레저타운 등의 설립계획은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중요한 미군기지들의 역사를 이룰테면 "주한미군 역사박물관"의 설립이라던지 혹은 아카이브의 구축이라던지,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록하여 대중에게 남기겠다는 계획을 아직은 마주쳐 본 적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원준의 사진은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폐허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적 연구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우울하게 처분을 기다리는, 지루하게 오래된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어느덧 소멸된 지리학적 잔재들의 초상이다. 50 여년의 세월 동안 흐르는 시간을 매김질하는 신중한 혹은 우발적인 결정들의 산물인 군사시설의 폐허들은 '자유'대한민국, 북조선, 그리고 한국의 우방이자 동시에 북한의 "공공의 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환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멸된 잔재는 역사성의 기록이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견제세력의 요충지의 잠재력으로서, 또 급속히 빨려들어가는 세계화의 순간들 속에서, 즉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담론을 열고 있다.

재미 사회학자 문승숙교수는 한국의 모더니티를 설명하는데 있어 군사화된 모더니티라는 매우 유용한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그의 저서에서 문승숙은 반공군사체제와 군사화된 산업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2 등국민으로 전락하는 배경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Seungsook Moon,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Raleigh: Duke University Press, 2005).

Marc Auge,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New York: Verso, 1995).

Yi-Fu Tuan, *Space and Tim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pp. 3-7.

“공공영역 속의 친밀함”이라는 표현은 줄리아나 브루노의 최근 저서의 제목에서 얻었다. Giuliana Bruno, *Public Intimacy: Architecture and the Visual Arts* (Cambridge: MIT Press, 2007).

작가가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9년 11월 20일.

작가가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9년 11월 20일.

줄리아나 브루노는 제인과 루이즈 윌슨의 작업 중 특히 베를린에 있는 구 동독 비밀경찰본부와 스타시 감옥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영상설치작업인 <스타시 시티>를 논하며 혼옥 및 처벌의 공간을 거꾸로 재감시한다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Bruno, 73.

최원준, 박찬경, <Undercooled>, 전시 리플렛, 대안공간 풀, 서울, 2008.

브루노는 빅터 파스모어의 아폴로 파빌리온을 기본으로 한 윌슨 트윈의 설치작업인 <자유와 익명의 기념비 A Free and Anonymous Monument> 를 논의하면서 파스모어의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고대의 건축물과는 달리 우아하게 늙어가지 않으며, 표면을 가르는 금만 생길 뿐이라고 한다. Bruno, 81.

최원준이 그의 글에서 밝히듯이 타운하우스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양식 중의 하나이며 주한미군들의 주택양식이기도 하다. 최원준은 그의 미군기지 연작을 그가 어렸을 적에 다녀왔던 용산 미 8군 안의 레스토랑의 이름을 따라서 명하였다.

사진에 보이는 캠프 자이언트는 2004년 8월에 이라크로 파병되었다.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1997), p. 290-291.

최원준의 비워진 공간의 이미지들이 주는 심리적 긴장감은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추종하며 한국전쟁과 분단의 갈등이라는 역사를 엔터테인먼트로 각색해 온 한국의 상업영화의 스펙타클과도 큰 차이를 견지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국민국가의 형성을 그리는 영화들도 역시 남성간의 유대를 위주로 한 액션과 멜로드라마의 혼합물이며, 여성은 늘 배제되거나 퇴장당한다. 주은우의 글 “미디어와 역사의 소비”를 보라. 저널 볼, 3호 <역사의 호출>, 2006 여름.

작가가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9년 11월 20일.

특히 문승숙이 지적하듯이,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강력한 효력 때문에 파생된 결과로서 군사정권 하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과거가 그렇게 먼 지난 날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원준의 사진이 군사화된 모더니티의 폐허의, 특히 젠더화된 남성적 공간의 모습의 기록이 주를 이룬다면, 작가는 그의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이러한 장소들의 생성과 이로 인해 영향받은 수많은 이들, 특히 여성과 소수자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문승숙, 181 쪽을 보라.